

MEDICAL Observer

KMI, 아주대의료원과 진료·연구 업무협약 체결

검진센터 응급환자 신속 대응 및 진료 의뢰 등 협력 강화

(메디칼업저버) 신형주 기자 hjshin@monews.co.kr
2025.05.09 14:50



KMI한국의학연구소는 아주대학교의료원과 진료 및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이번 협약에는 아주대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한상욱 교수, 대외협력실장 민영기 교수, 아주대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이광 교수, 아주대병원 호흡기내과 박주헌 교수, 응급의학과 안정환 교수와 KMI한국의학연구소 이광배 이사장, 이광엽 경영기획실장, 김상묵 수원센터장, 정수진 수원센터 의료지원본부장, 김우진 상임연구위원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.

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의료 협력, 공동 연구, 학술 교류, 정보 제공 및 상호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.

주요 협력 분야는 ▲검진 및 진료 의뢰 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▲검진센터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의료지원 협조 ▲상호 협력 가능한 연구 주제 발굴 ▲연구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정보 교류 ▲연구 성과의 창출·활용·확산을 위한 지속적 협력 ▲심포지엄·워크숍·학술회의 등 학술 교류 활동 확대 등이다.

한상욱 아주대의료원 원장은 “전국 최대 규모의 응급환자가 방문하는 아주대의료원이 국내 대표 건강검진기관인 KMI와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”며 “특히 KMI 검진센터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, 진료·연구 전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이광배 KMI 이사장은 “지난 40년간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노력해 온 KMI가 경기 남부권의 중심 의료기관인 아주대의료원과 협력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”며 “이번 협약을 계기로 검진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진료 및 연구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어 국민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”고 밝혔다.

아주대의료원은 경기 남부권의 필수·응급·외상 의료의 거점 역할을 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, 특히 아주대의료원이 운영하는 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치료 분야의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년 9만 명 이상이 내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응급의료센터다.

KMI는 전국 8개 지역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며 연간 140만 명이 넘는 수검자가 방문하고 있고, 매년 상당수의 중증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난해 기준 암 조기발견 건수는 약 4,000건에 달한다. 특히 KMI 수원검진센터는 아주대의료원에 가장 많은 환자를 의뢰하는 의료기관으로, 양 기관은 이미 지역 내 진료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.